

# 기업의 가족친화적 돌봄지원사업의 대안

정 영 금(가톨릭대학교 교수)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어린 자녀를 둔 노동자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기업은 고용인들의 생산성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가족친화적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사람들의 가치관도 일 중심의 생활에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잡으려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직원들은 가정생활을 도와주는 제도들이 많은 회사를 선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도적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가족친화적 경영을 시도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가족친화제도의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친화적인 경영은 현재 개별 회사와 그 직원들에 국한되어 있다. 즉 각각의 회사들이 자사 직원들의 가정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이직률을 낮추거나 회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좀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봉사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활동이 대부분이다. 특히 사회봉사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업이 개별적으로 자사의 인적자원이나 특성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좀 더 다양하고 전략적인 방안들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친화경영의 한 부분인 가족친화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하는지를 통해 사회적 책임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여기에서 기업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가족친화기업인증에서 분류하는 가족친화문화의 내용을 살펴보고 기타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족친화적 문화활동의 사례를 알아보았다.. 또한 기업의 사회봉사활동 중 가족돌봄과 관련된 사례들을 통해 우리나라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ABC 사례를 중심으로 자녀 및 노인 돌봄을 위한 기업의 대안적 활동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족친화경영 및 가족친화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가족친화지원센터 및 가족친화포럼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돌봄을 위한 기업의 활동으로 대표적인 사업은 어린이집의 운영이나 방과후활동지원,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사 파견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개별기업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대부분이고, 기타 몇몇 기업이 연합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나 기업과 지자체가 연합하는 방식, 사회적기업으로 운영되는 방식 등이 있다. 이에 비해 ABC(American Business Collaboration for Dependent Care)는 1992년부터 여러 기업(Champion Companies)이 연합하여 돌봄활동의 질과 양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수행하여 왔으며 기업경영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결과 지향적이고 전략적인 가족친화적 사업을 실시하였다.

ABC에는 현재 60여개 이상의 유명회사들이 속해 있으며 자녀돌봄사업, 학령기 자녀돌봄사업, 긴급보호사업, 노인돌봄사업을 중심으로 15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돌봄교사들을 대상으로 Family Friendly Practice for Family Child Care Provider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기업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직원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지역을 공유하는 기업들이 연합하여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혁신적인 사업들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가족친화사회조성을 위한 정책에서는 기업의 돌봄지원을 위한 역할을 강조해야 할 것이며, 그것의 실행기구로서 가족친화지원센터와 가족친화포럼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